

송광사 목조관음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 보물 지정 예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보물 제1660호로 지정된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010-2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연해)>권1, 보물 제1658호로 지정된 재조본 <유가사지론>권42.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 등 5건이 보물로 지정되고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이 보물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보물 제1660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순천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그 복장유물이다. 복장유물은 경전과 옷가지 등 35점이다. 특히 배자와 경안군(慶安君)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빛 저고리 안에 적혀 있는 발원문은 불상을 모신 배경과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경안군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의 아들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 해회·금문 스님의 작품이다. 1662년 궁중나인 노예성(盧禮成)이 경안군 내외가 오래 살 것을 기원하며,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취미수초(翠微守初) 스님 등의 시주로 조성됐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오준영 학예연구관은 "이 불상은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이 짙게 반영돼 있는 등 조성 배경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각의 완성도에서도 이 시기 불상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물 제1661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은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복장됐던 복장유물 중 중요 불교경전 8점이자, 복장된 경전 중 <대방광불화엄경합론(大方廣佛華嚴經合論)>은 이 권성(李權生), 박문손(朴文孫), 유약(柳約) 등이 판하본을 쓰고, 전라도 광주목(全羅道 光州牧)으로 하여금 판각, 간행하게 한 간경도감본 교장(敎藏)이다.

오준영 학예연구관은 "복장유물 중 복장전적을 별도로 보물 지정한 것은 재조대상경은 해인사대장경(법만대장경)의 15세기경 인본(印本)으로 희귀한 자료로 평가돼 복장전적으로 별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존·관리해야 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유물 35점과, 복장전적 8점은 8월 24-26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절을 달고 윤사로 등이 간경도감에

서 번역해 1463년(세조 9) 국역 간행한 <묘법연화경(연해)> 권1·4'는 보물 제1010-2호로,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는 보물 제1658호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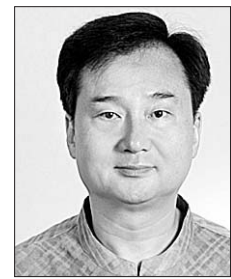
이와 25일, 문화재청은 <대혜보각선사서> 등 34건의 문화재를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유물로는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大勝基新論)> <묘법연화경> <상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봉화 정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이 있다. 이외에도 '풍악'과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김정희 해서 목소거사자찬' 등 27건을 보물 지정 예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조각류 석불·마애불 123건(국보 5건, 보물 118건)과 전적·서적·서각류 352건(국보 48건, 보물 304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대한민국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동섭 기자

사성제·팔정도로 집단상담

박찬욱 소장, 23개 마당 3박4일간 진행



박찬욱 소장

불교 교학과 수행법은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들에 대한 탐구 결과다. 초기불교 이후 불교는 시대·지역적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론체제와 다양한 방법들을 발전시켜왔다.

'밝은사람들연구소' 박찬욱 소장은 최근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서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불교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시험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불교 수행방법을 적용해 개발한 서양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MBSR, MBCT, DBT, ACT가 있다. 이들은 모두 마음챙김 명상을 심리치료에 활용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및 개발에 있어 국내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프로그램들은 불교 수행법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소장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서구에서 심리적

료에 활용되고 있는 점은 불교가 현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안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며 "그러나 마음챙김 수행을 주로 병증의 개선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어, 정념 수행의 본질을 전달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운영되는 불교 심리치료 상담 프로그램들의 경우, 서구와 달리 이론적 배경과 프로그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찬욱 소장은 초기불교의 핵심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바탕으로 삶을 성찰하고 명상을 습득하는 불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 소장은 두 가지 가설 △마음챙김이나 수용행동 및 자기에 대한 자비심은 증진되고 집착심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신병리(불안, 우울, 대인예민성 및 적대감) 수준이 낮아지고, 주관적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를 세운 뒤 총 2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3박4일의 불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서울 소재 D대 학생 28명에게 통째로 실시했다.

14명의 실험집단 참여자들은 각 마당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5-10분 동안 입출식념(入出息念), 몸과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 자애명상을 반복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준비된 활동을 통해 성찰하고 집단 상담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연기적 현상으로 다루도록 훈련했다. 훈련을 통해 내적 경험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내적 경험을 환영하고, 따뜻한 태도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내적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 공통의 확대를 예방하는 것임을 체험적으로 학습하도록 시도했다.

박 소장은 "실험집단 학생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마음챙김, 수용행동, 집착 수준이 긍정적으로 증가했

다"며 "이러한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유지되거나 향상됐으며 참여자들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질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은 고정된 시각에 변화가 생기므로써 경직된 지각·감정·생각이 유연해졌고, 당면한 상황에서 보다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게 됐다. 이 밖에 불안, 우울, 대인예민성 및 적대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 소장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동일한 절차에 암 환자라는 점을 감안해 질병의 원인을 성찰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박 소장은 "이 실험에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해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며 불안, 우울 등 심리 문제의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인간의 이고득락(離苦得樂)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온 불교와 상담심리학은 호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심신치유, 신도 교육, 템플스테이, 대학교 교양과목, 청소년 인성개발 등 목적·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나 기자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용된 원리

1. 각자의 삶이 주교재: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에 대해 이해한다: 삼법인(三法印)의 이치를 이해하면 외부 대상, 본인의 몸과 마음 현상에 대한 탐심·집심이 약화된다.
3. '나'를 오오으로 해체해 본다: 탐심과 집심이 약화되고 알아차리는 힘이 강화된다.
4. 몸과 마음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삼독심이 경감되게 한다. 집착과 두려움이 일어나도 수용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장한다.
5. 선(善)·불선(不善)에 대한 안목을 갖는다: 의도가 행위에 선행하므로 의도를 알아차린다. 이 능력이 커질수록 치심(癡心)은 경감된다.
6. 생각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은 보듬고, 욕망은 조절한다: 불편한 감정을 바꾸기보다 보듬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욕망을 조절함으로써 만족감이 증가한다.
7. 유익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한다: 선한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8. 궁극지향, 과정목표, 실천계획을 명료화한다: 목표가 없는 삶은 공허할 수 있고, 지향점이 선포하지 못하면 갈등한다.
9. 소통과 교류의 순기능을 활용한다: 진솔하고 진지한 상호피드백을 통하여, 신뢰감이 증대되고 성찰은 촉진된다.
10. 입출식념(入出息念)을 배우고 익힌다: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정념(正念) 수행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번뇌가 경감되며, 알아차리는 힘이 강화된다.
11. 자애심을 일으키고 증장한다: 자기에 대한 자애심이 커지면 번뇌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너그러워진다.

구분	해당 마당	주요 내용
도입	1	오리엔테이션
	2-3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
	4	참가목적, 행동목표 명료화
	5	반발하는 괴로움에 대한 수행적 분석, 괴로움 발견
고	기타 마당 '나누기'	자기개방, 성찰, 괴로움 발견
	6	반발하는 괴로움에 대한 수직적 분석,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해 증진
	기타 마당 '나누기'	자기개방, 성찰, 괴로움의 원인 통찰
	7-8, 14-15	입, 습, 선·불선에 대한 안목 배양
집	9,13	알아차림, 의욕, 의도, 의지, 노력
	10	욕망(욕구)확인, 조절
	11-12, 기타 마당 '나누기'	궁극지향 확인, 과정목표 세분, 실천계획 구체화
	16-17	선(유익)한 행위 실천
도	18-20	경정 사교 함양
	21-22	감무리하기
	기타 마당 '명상'	입출식념(入出息念), 몸과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 자애수행 습득
	기타 마당 '나누기'	수용·공감·인정·칭찬 등을 통한 괴로움 경감, 괴로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종결	23	주의사항 전달, 추후 모임 협의 등 마무리

*무상·고·무아통찰과 탐진치 삼독심 경감은 도입, 종결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짐

천문으로 보아 국가발전과 민족의 운명을 보며 인명은 제천에 있느니라. 각종신앙으로 자신에 접신한 신이 자손으로 안가고 자기대에서 보림하는 2010년 천년에 한번드는데 음 7월 29일 자오신시에 양갑 칠살로 모든 잡신을 제도 성불 받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갑경칠살로 지구촌에 물과 불과 이음모를 소두무족군으로 천지개벽이 오고 있다. 그대를 초대하여 이 시대에 성불한 도인만이 살아 남아 중생을 구하는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다같이 도통 성불 합시다!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몸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고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천년에 한번드는데 경신일 갑신월 경신일에 갑경칠살로 성불 받는 날이다.
대용맹정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경신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특별 금년 경신년은 해도금모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동동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약한운과 일체교역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입성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을 얻어 필자를 바꾸는 수행인 것이다.

2010년 음 7월 29일은 경신년 경신일 7월은 갑신월 경신일 갑신시가 천년에 한번 돌아오는 성스러운 해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탈신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에 목을 매는 것을 미래에 덕초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저술예언 의통 즉시 예측하는 법을 얻어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간음향과 세월 일사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합신마장을 소멸 하는날 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이 법을 주위 자신에 보림하는 법을 얻는 천정지법인 것이다.

천지공사 육경신도통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자신이 운명을 비껴갈 수 있는 영포대로 입장 소멸하여 자신이 운명을 조종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통법 인 것이며 천지공사인 것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상통천문하달 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도천명 득도하는 법회를 통해, 금년 유행되는 전염병과 그 어떠한 마장도 다스리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되어 잡신에게 빙이 된 영혼을 열어 일체 영가 해탈 시키는 초동력을 얻는 대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 금정구 장전3동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 051)635-3110 / 010-8533-1601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경신도통 수행처 태양정진 통향사 통향사 법당인연사, 맞이공양사, 수행사, 인연사 동침자, 입중 환영.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3239-3110
●입제 : 양력 2010년 9월 6일 (음 7월 28일 월요일) (해시)
●해제 : 양력 2010년 9월 7일 (음 7월 29일 화요일) (해시)
021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객대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 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보라매병원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삼천 세계불교 달마중 충 본산 태일합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 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은고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기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광수련원 ☎043)905-8275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388번지>